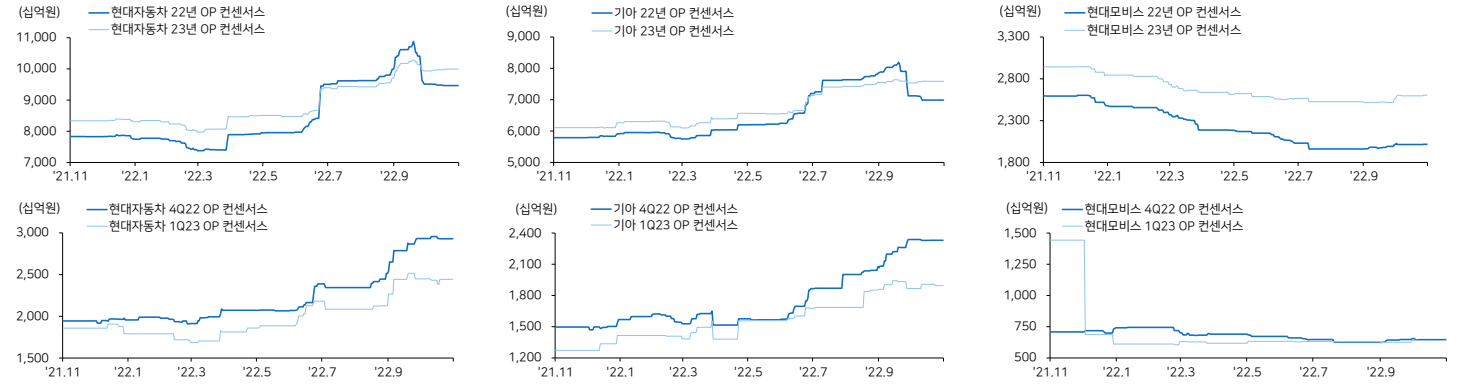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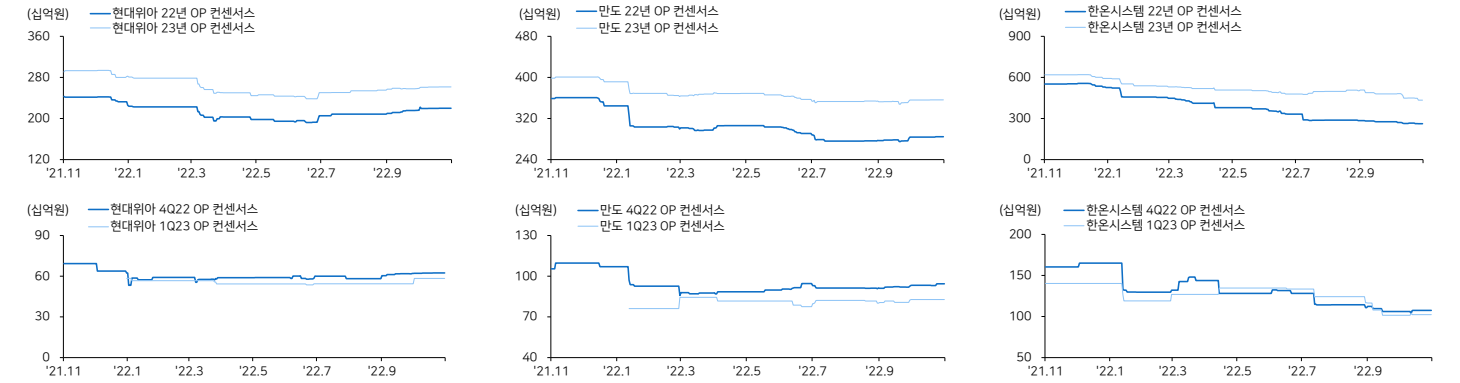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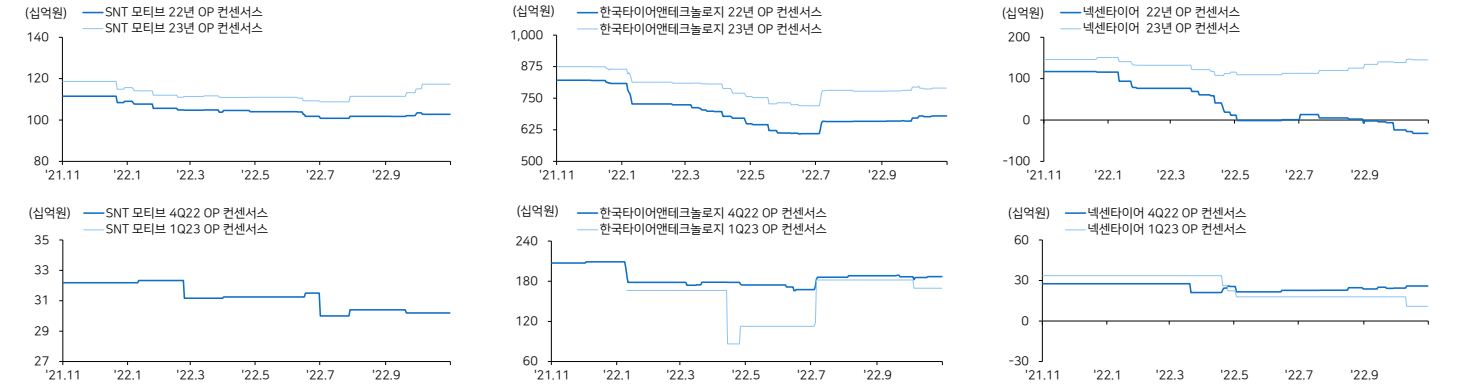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그룹 - SK은 미조지아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 ··· 부지도 '바토 카운티'로 확정 (매일경제)

현대차그룹과 SK은 미국 조지아주 북서부에 위치한 바토 카운티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을 설립할 계획. 약 5~6조원 투자 예정으로, 2025년 양산 목표. 조지아주 건설 예정인 현대차그룹 신공장과는 4~5시간 떨어진 거리에 위치.
<https://bit.ly/3Y9iIFB>

"7년 내 6배 성장" LG, 전기차 충전사업 박차 (조선비즈)

LG그룹이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 부서를 신설하고 올해 인수한 전기차 충전 자회사 애플망고에 추가 출자를 하는 등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 LG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충전기를 제조해 시장에 보급하겠다는 계획.
<https://bit.ly/3VH3NTG>

Wholesale used-car prices show slight decline in November (Automotive News)

도매 중고차 가격이 11월 mom -0.3% 하락, yoy -1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Cox Automotive에 따르면 중고차 소매판매는 11월 mom -1% 감소, yoy -10% 감소함. 11월 매출액으로 따지면 2019년 11월 대비 22% 감소한 수준을 기록.
<https://bit.ly/3UNP3K1>

Tesla to Shorten Shanghai Factory Shifts, Delay New Hires (Bloomberg)

테슬라 상해공장이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일부 신입사원의 추가 투입을 연기했다는 소식.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기존 11.5시간(2교대)의 운영시간을 9.5시간(2교대)으로 단축하고, 이로 인해 생산량의 급예도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bloom.bg/3VH5iK4M>

고급리에 후 주문 줄자 고객 모시기...현대차도 2년 한 할인 (이데일리)

내년도 경기 침체 우려와 자동차 할부 금리가 오를자 출고 대기 중인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더 나아가 신차 주문도 주춤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연말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 모시기에 나선.
<https://bit.ly/3W47G4Q>

해외 전문가에게 '파격 대우' 러브콜...현대차, 태양광 자동차 개발 속도 낸다 (한국일보)

현대차는 최근 선형기술원에서 일할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태양전지 개발 연구진 영입에 나선. 현대차에서 꽤 공격적으로 인력을 끌어모으려는 분위기로, 국내 정상급 인력은 물론 해외 인력에게도 매력적 처우를 제시
<https://bit.ly/3FDsY77>

GM CEO sees U.S. new-car sales rebounding in 2023 (Reuters)

GM CEO 메리 바라는 미국의 자동차 수요가 여전히 강하며 2023년 미국 신차 판매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 S&P모빌리티는 미국 신차 판매가 2022년 1,370만대, 2023년 1,470만대를 전망했으나 메리 바라는 2023년 1,500만대를 예상.
<https://reut.rs/3FD9DQf>

Volkswagen postpones decision on gigafactory in eastern Europe beyond 2022 (Reuters)

폭스바겐은 2022년 이후 동유럽 지역에 계획된 배터리 기가팩토리의 위치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힘. 총 6개의 기가팩토리 계획 중 4번째 공장이 해당하며,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유 후보지가 거론됨.
<https://reut.rs/3Y7ncP0>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 안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